

夢遊譚의 寓意的 傳統과 開化期 夢遊錄

鄭 學 城*

1. 緒 論

開化期를 過渡期的 段階로 파악하려는 文學史的 觀點으로 인해, 開化期 小說 作品의 構造나 形態에 대한 研究는 前代小說과의 連續性 및 傳統의 發展的 繼承 如否를 늘 문제삼아 왔었다.¹⁾ 한편 이들 작품의 思想的 內容에 대한 근래의 연구는 政治·文化運動과 관련된 開化期 文學 一般의 歷史的 性格으로 인해, 이론바 작가의 歷史意識에 있어서 主體性과 正統性을 문제삼게 되었다.²⁾

‘開化期 夢遊錄’이라는 이름 아래 本稿에서 다루려는 몇 작품들이 近年에 注目받게 된 것도 우선은 歷史意識과 관련된 작품의 思想的 價値에 대한 再 認識때문이었다.³⁾ 이들 작품에는 民族의 危機에 直面한 開化期 知識人들의 苦惱와 함께 民族의 進路에 대한 그들의 所信이 폭넓고 자유롭게 表明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작품이 ‘開化期 小說’의 範疇과 小說史의 脈絡 속에서 擧論되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 작품의 叙述構造가 前代 小說史의 傳

* 博士課程(國文學專攻)

- 1) 全光鏞教授의 ‘新小說研究’(『思想界』1955.10~1956.11)以來 李在統(韓國開化期小說研究, 一潮閣, 1972), 趙東一(新小說의 文學史的 性格, 韓國文化研究所, 1973) 두 分의 研究를 대표적 예를 들 수 있겠다.
- 2) 申東旭, ‘新小說에 反映된 新文化의 受容態度’(東西文化 4輯, 啓明大出版部, 1970) 李在統, ‘開化期의 憂國小說’(開化期의 憂國文學, 新丘文化社, 1974) 趙東一, ‘開化期文學의 概念과 特性’(國語國文學 68·69 合, 1975)
- 3) 劉元杓著「夢見諸葛亮」(隆熙 2년 廣學書舖發行), 朴殷植著「夢拜金太祖」(朴殷植全書 中, 檀國大出版部, 1975, pp. 187-312), 申采浩著「꿈하늘」(丹齋申采浩全集·補遺, 螢雪出版社, 1975, pp. 153-201) 등 세 作品을 本稿의 資料로 삼았다. 이들에 대한 既往의 研究로는 尹明求의 「夢見諸葛亮」考(우리文化 5輯 別冊, 1975)와 李明宰의 ‘丹齋小說攷’(淵民李家源博士 六秩頌壽紀念論叢, 汎學圖書, 1977) 등이 있다.

統에 어떻게 接脈되어 있는가가 解明되어야 할 것이다.

本稿에서는 이들 작품이 夢遊錄이라는 前代 形式을 受容하여 새로운 思想을 표현하는 過渡期的 特殊性을 뚜렷이 보여 주고 있음에 着眼하여, 夢遊錄의 傳統이 이들 작품에 어떻게 繼承・變容되고 있는가를 形式史 또는 장르사의 측면에서 論議함으로써 이 문제에 接近해 보고자 한다. 즉 前代의 夢遊錄을 敎訓的・寓意的 性向이 강한 古代小說의 한 變型으로 보고, 夢遊錄의 叙述構造와 開化期 作品의 構造를 相互關聯下에 論議함으로써, 이들 작품의 構造의 特質과 小說史的 關聯을 밝혀 보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立論이 妥當성을 얻기 위해서는 前代 夢遊錄 作品의 叙述構造가 이를 分分泌한 小說史的 傳統에 어떻게 接脈되는가를 밝히는 方法論的 段階가 필요할 것이다.

論議의 전개를 위해 앞질러 말해 두어야 할 것은 開化期 夢遊錄 各 작품의 構造는 前代 作品의 規範화된 類型的 共通性⁴⁾으로 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 各己 獨自의인 變形을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前代 小說들 중에는 일정 패턴으로 類型화된 夢遊錄 外에도 ‘夢遊(꿈의 旅行)’의 모티프를 叙事의 基本 構造로 삼고 있는 작품이 술하다는 사실과, 開化期 文學 作品들 중에는 이들 夢遊錄系 作品 外에도 「禽獸會議錄」과 같은 寓話나 교훈적인 開化歌辭의 一部도 夢遊의 모티프를 작품 전개의 기본 틀로 삼고 있음을 想起할 필요가 있다. 이런 點을 考慮할 때, 우리는 開化期 夢遊錄의 構造의 特質과 관련하여 夢遊 모티프를 叙事의 기본 구조로 삼고 있는 夢遊譚 形式의 傳承 一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의 小說 傳統 속에서 夢遊의 모티프는 이야기의 전체 구조 속에서 주로 어떠한 意味와 機能을 지니며,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表現 效果와 可能性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것은 혹시 교훈적 목적의식과 자연스런 관련을 맺을 素地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開化期 作品들의 구조는 前代의 여러 작품에 비해 어떻게 變容되었으며, 이러한 작품 구조는 夢遊라는 모티프와 어

4) 이에 대해서는 拙稿 ‘夢遊錄의 歷史意識과 類型的 特質’(冠嶽語文研究 2輯, 서울大出版部, 1977) 參照.

떻게 聯關되고 있는가?

이상과 같은 문제는 夢遊라는 모티프의 發想 및 敘事的 構造原理, 敘事文學 傳統 속의 다양한 작품에 대해 광범위한 논의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필자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해명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다만 本稿에서 의도하는 바는, 夢遊譚이 傳承 過程 가운데서 왜 夢遊錄과 같이 교환적 목적의식이 강한 敘事樣式으로 轉化되게 되었으며, 開化期の 작품들은 이러한 전통을 어떻게 계승 변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이들 작품의 構造와 小說史的 關聯을 새롭게 檢討해 보고자 할 따름이다.

그리고 이러한 傳統 繼承에 대한 논의가 다만 形式이나 構造의 측면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또 다른 문제 즉, 作家意識 또는 思想的 內容과의 관련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本稿에서 지향하는 立論의 方向이다. 거꾸로 이들 작품의 思想的 內容을 따로 論議하는 자리에서도, 本稿의 주된 관심은 夢遊錄 形式의 受容을 통해 표현될 수 있었던 思想的 特質이 무엇인가를 抽出하는 데에 두고자 한다.

2. 夢遊譚의 寓意的 傳統과 夢遊錄

現實과 不和 속에서 安住하지 못하는 人間 心性은 새로운 世界的 體驗을 所願한다. 常識의인 理論이지만 꿈은 이러한 人間 心性의 요구와 經驗의 現實 사이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原初의 方法이기에, 自古로 “敘事的 모티프의 源泉이 되어 왔었고 또 虛構의 플롯의 출발에 많은 영향을 주어”온 것이다.⁵⁾ 그리고 새로운 체험을 향해, 自身과 和解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떠난다는 점에서 꿈은 一種의 旅行에 비유되고, 따라서 夢遊譚은 일종의 旅行譚으로 看做될 수 있다.

꿈의 여행에서 얻어지는 체험은 그 자체가 이야기의 목적으로 추구될 수 있다. 예컨대 「龍宮赴宴錄」과 같은 작품에서 꿈의 旅路는 主人公(또는 作家)이 처한 現實의 抑壓과 不安으로부터 自身을 救援할 수 있는, 그의 自由

5) 李在銑, 前揭書, p. 249.

로운 삶의 可能性으로 追求된 것이다.⁶⁾

그러나 꿈의 여행은 覺醒된 意識의 상태로 回歸하면서 끝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夢中體驗은 때로 夢遊譚의 전체 構造 속에서 自體가 목적으로 추구되기 보다는 오히려 새롭게 覺醒된 意識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過程 또는 段階로서 機能化되기도 한다. 예컨대 「九雲夢」의 경우 主人公이 궁극적으로 추구한 것은 夢中の 遍歷이 아니라 이를 거쳐 새롭게 回復된 그의 本性이며, 永遠하고 眞實한 삶의 覺醒에 작품의 궁극적 목적인 主題가 놓여 있는 것이다. 여기서 夢中體驗은 그러므로 主人公이 빠져든 情緒의 不安과 疑惑을 解決할 洞察力을 제공하는 일종의 辯證法的 過程이나 契機로서 理解될 수 있다.⁷⁾

바로 이런 點에서, 즉 現實 經驗에서 생긴 不安이나 問題를 解決·洞察할 수 있는 經驗的 契機를 마련해 주면서도⁸⁾, 實際의 삶(經驗過程)을 온전히 維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夢遊의 모티프는 敎訓的 寓意의 손쉬운 方便이 된다. 이때 작가의 意識의인 主題와 技巧은 不安의 解消라는 순수한 情緒的·心理的 葛藤 과정에 대응하여, 疑問의 解決 또는 眞實의 覺醒이라는 知的 體驗의 要素를 多少間 介入시키는 것이다.⁹⁾ 예컨대 우리는 「九雲夢」보다 훨씬 敎訓的·知的 性向이 강한 작품으로 「南炎孚州志」를 볼 수 있다. 이 작품에서 主人公은 挫折과 葛藤 속에서 彷徨하다가 꿈의 여행을 떠나는데, 그가 평소에 고민·갈등하던 모든 知的·哲學的 問題는 夢中體驗을 통해 남김없이 解明·覺醒되고 있다. 여기서 夢中世界는 歪曲되어 있는 現實世界의 昏迷를 이에 비추어 修正·解決할 수 있는 궁극적 眞理를 顯示해 주고 있는 것이다.

6) 「王樓夢」等 夢字類 小說도 이런 점에서 마찬가지일 것이다. 'quest romance' 와 꿈과의 親近性에 대한 N. Frye의 설명(*Anatomy of Critic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3, p. 193) 참조.

7) 「九雲夢」의 夢遊體驗이 갖는 辯證法的 性格에 對해서는 金炳國, 「九雲夢研究」(國文學研究 6輯, 서울大 國文學研究會, 1968) 參照.

8) 이것은 '旅行'의 모티프가 이야기 속에서 갖는 일반적인 意味와 機能이다. cf. *Myths & Motifs in Literature*, ed. by David J. Burrows & Frederic R. Lapsis & John T. Shawcross (The Free Press, New York, 1973) p. 135.

9) 敘事構造 속에서 情緒的·知的·模寫的 等 諸要素가 結合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R. Kellogg & R. Scholes, *Nature of Narrative*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1966) ch. 3·4 참조.

歷史的 矛盾 속에서 葛藤에 처한 士大夫들이 이러한 그들의 갈등과 역사 과정에 대한 信念을 표현하기 위해 創出한 夢遊錄은, 夢遊譚의 形式이 內包할 수 있었던 이러한 寓意的·知的 要素를 새롭게 강화·계승한 것이다. 우리는 꿈속에서 死者(故人)를 만나 그의 知識이나 豫示를 求해 오는 夢遊譚의 特異한 類型을 익히 알고 있다. 過去經驗에 비추어 現實을 照明해 보고 未來를 豫視하는 것이 우리의 歷史意識이라면, 故人和 만나는 夢遊譚이 이러한 歷史意識과 結合할 素地는 애초부터 지니고 있는 것이다. 과거 역사의 偉人들을 모아 傳統社會의 理想的 形態를 그린 夢遊錄作品들에서¹⁰⁾ 夢中世界는 一面 現實經驗의 挫折과 不安을 補償하는 幻想 自體의 享樂的 追求를 목적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歷史傳統 속에서 추구된 理念世界는 또한 一面으로, 覺醒된 意識 속에서 다시 만나는 現實世界가 到達해야 할 目的으로서, 또는 타락한 現社會가 이에 의해 修正되어야 할 辯證法的 對立命題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¹¹⁾ 그리고 우리는 이 작품들에서 夢遊가, 象徵的 心理的 次元에서는 絶望과 不安 속에 退行하는 內面世界로의 여행임을 여기서 想起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이들 작품에서 전개되는 夢中世界는 歷史的 時間이 絶滅된 超越의 空間이며, 따라서 歷史展開의 理念을 추구하기 위해 動員된 歷史的 諸事實은 그 客觀的·具體的 實在性을 부분적으로 喪失하고, 觀念的으로 抽象된 象徵的 意味를 띠는 것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작품에 비해 「元生夢遊錄」等 몇 작품¹²⁾들에서 夢遊는 心理的 次元에서 挫折과 不安, 絶望으로 因한 死界로의 退行이라는 점은 同一하나, 夢遊의 體驗過程을 통해 混亂한 現實의 문제가 해결되기 보다는 오히려 正面으로 認識·覺醒되고 있다는 점에서 前者와는 구별되는 教訓을 주고 있다. 즉 不條理한 現實社會에 의해 不當하게 疎外된 者(死者의 冤魂)들을 夢中世界에 등장시켜, 日常現實 속에 埋沒되고 음폐된 眞實을 告發·暴露케 하고

10) 大觀齋夢遊錄·泗水夢遊錄·金華寺夢遊錄 等の 作品. 이들 작품의 幻想은 士大夫層의 分裂과 타락에 대한 反動으로 이루어졌다. 抽稿, '夢遊錄의 歷史意識과 類型의 特質' 參照.

11) 東西의 모든 유토피아의 꿈은 이와같은 兩面的 屬性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cf. Arthur O. Lewis, Jr., 'The Utopian Dream,' *Direction in Literary Criticism*, ed. by S. Weintraub & Philip Young,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73, pp. 192-200)

12) 「皮生冥夢錄」「連天夢遊錄」「江都夢遊錄」等の 作品.

있는 것이다. 이들 작품에서 夢遊의 모티프는 그러므로 歷史的 體驗을 再生할 뿐 아니라, 人間社會에서 疎外된 異界人을 불러들여 그들을 통해 現實社會의 不條理를 洞察·批判케 하는 視線을 제공하는 구실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비록 꿈의 여행은 아니지만 幻想的 旅行이라는 점에서 그와 同質의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토끼傳」의 水宮旅行을 想起해 볼 수 있다. 토끼의 水宮 訪問一回歸는 그의 內面世界와 관련하여 볼 때, 欲望에의 깊은 沈潛과 人間本性的 回復·強化 또는, 盲目的 欲望과 眞實의 覺醒이라는 象徵的 意味를 지닌다. 그러나 한편 토끼의 水宮旅行을 그의 外部世界와 관련하여 볼 때, 그것은 疎外者(庶民)의 눈에 비친 不條理한 封建社會의 戲畫가 되는 것이다.¹³⁾

3. 開化期 夢遊錄에서의 變容

以上에서 概觀해 본 바로, 夢遊譚의 形式은 교혼적 목적의식을 假托할 수 있는 寓意的 成分을 多分히 包含하고 있으며, 理想의 提示나 思想의 傳達, 現實의 批判이나 事實의 報告, 眞實의 覺醒 등 多樣한 方式으로 그 可能性이 展開되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夢遊譚의 形式이 寓話나 諷刺·論說 등 餘他的 교혼적 文學 形式과 結合할 素地는 충분한 것이다.

「禽獸會議錄」은 그 대표적인 例이다. 이 작품에 담겨진 세계는 荒廢한 人間社會·世態가 풍자적으로 묘사·규탄되는 이른바 디스토피아의 세계이다. 夢遊의 모티프는 여기서 人間社會의 異邦人이라 할 수 있는 動物들을 불러들여 그들의 視線으로 價値 轉倒된 人間社會의 不條理를 바라보게 하는 裝置로 쓰이고 있다. 이처럼 動物에 의한 人間社會 批判은 한편 燕巖의 「虎叱」에로 그 傳統의 脈이 소급될 수 있는데, 그 경우는 北郭을 주인공으로 하는 諷刺譚과 虎叱의 場面을 造作된 劇의 플롯을 통해 奇妙하게 結合시킨 것이다. 夢遊의 모티프는 이처럼 奇妙한 플롯의 考案 없이도 손쉽게 動物과 人間社會를 결합시켜 諷刺를 가능케 하고, 최소한의 虛構의 構圖를 마련할

13) 「토끼傳」의 풍자적 성격과 토끼 성격의 內的 發展에 대해서는 拙稿, 寓話小說研究(國文學研究 18輯, 서울大 國文學硏究會, 1972) 參照.

수 있는 方便이 되는 것이다. 「警世鍾」은 夢遊에 의한 假托 없이 직접 動物과 人間社會를 결합시키고 있는데, 이에 비해 夢遊의 모티프를 額字로 이용한 「禽獸會議錄」은 兩者의 결합이 자연스럽다는 利點을 갖는다. 幻想的 體驗을 끌어들이는 額字的 裝置로서 꿈은, 讀者로 하여금 幻想世界的 虛構性과 遊戯性을 경멸하지 않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容納하게 하는 和解의 架橋인 셈이며¹⁴⁾, 幻想에 眞實性을 부여하는 修辭의 方案인 것이다.

開化期 夢遊錄 세 작품은 前代의 夢遊錄과 마찬가지로, 歷史的 矛盾에 처한 開化期 知識人들의 갈등과, 역사 과정에 대한 그들의 信念을 꿈에 假托해서 披瀝하고 있다. 「夢見諸葛亮」과 「夢拜金太祖」는 叙述者요 作家 자신인 夢遊者가 작품 前面에 등장하여 前時代人과 討論을 벌이는 형식으로 작품 내용이 전개된다. 人物들의 對話를 통해 작가의 思想을 劇化시키는 것은 前代 夢遊錄에서부터 있어 오던 傳統이나, 과거인과 현대인이 만나 당면한 歷史的 現實을 두고 토론을 벌이는 것은 이들 작품에서 새롭게 變形된 양상이다. 이 중 「夢見諸葛亮」의 경우는 現代·改革時代·朝鮮人인 夢遊者에 對立하여 過去·封建時代·中國人인 諸葛亮을 虛構 속에 끌어들이고, 兩者의 相互 對話와 批判을 통해 韓·中 兩國이 當面한 歷史的 諸問題를 새롭게 理解해 가는 形式을 취하고 있다. 이에 反해 「夢拜金太祖」의 경우는 金太祖를 民族史와 民族精神을 躍進시킨 偉人으로 虛構 속에 設定하고, 그로 하여금 夢遊者에게 民族史의 새로운 進路와 理念을 啓導·覺醒시키는 形式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작품 구조는 強化된 作家의 啓蒙的인 目的意識과 관련된 事實으로서, 多數 人物의 登場과 葛藤을 통해 劇化된 幻想世界를 夢遊者가 享樂·目睹하는 前代 夢遊錄의 叙事 구조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前代 夢遊錄과 마찬가지로 꿈을 통해서 過去人과 過去 歷史를 現在人의 意識 속에 불러들이고 있으므로, 歷史體驗과 관련하는 前代 夢遊錄의 知的·教訓的 成分을 對話의 形式으로 擴大·發展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또한 知的·教訓的 目的 意識만이 너무 勝해 對話와 說教로서 全作品이 展開될 때, 叙事的 性格은 極小化되어, 前代 夢遊錄에서 추구되어 오던 審美的 文學性과 劇的 緊張感을 多分히 喪失하고 있다. 「夢拜金太祖」에서 金太祖는 토론과

14) Arthur O. Lewis, Jr., op.cit., p. 194.

대화를 매듭하는 大團圓에서 夢遊者를 理想的 教育國家로 안내하는데, 여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들 작품은 前代 夢遊錄의 convention에 의해서만 그 叙事的 性格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 작품과는 달리 풍부한 比喻 속에 多彩로운 事件이 전개되는 「꿈하늘」은 開化期 夢遊錄의 壓卷이다. 삶·世界·歷史를 지배하는 抽象的 原理가 예컨대 서로 맞싸우는 두 손과 같이 比喻的으로 形象되고 있는 이 작품은 夢遊錄의 形式이 內包하고 있는 寓意的 成分을 活用하여, 이를 알레고리(狹意의 개념으로서, 比喻에 의해 觀念世界를 形象하는 叙事 樣式)로 轉換·繼承하고 있는 것이다. 虛構的 作品世界요 意識內面의 世界인 超越的 空間 ‘꿈하늘’과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歷史的 事實과 人物들은 民族精神의 發揚이라는 理想的·超越的·象徵的 樣相을 띄고 있으며, 이에 의해 전개되는 허구적 事件 역시 마찬가지로 比喻的·象徵的 意味를 지니는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作品世界는 궁극적으로 作家의 觀念論的인 歷史哲學에서 由來한 것이지만¹⁵⁾, 또한 一面으로는 「泗水夢遊錄」과 같은 前代 夢遊錄의 寓意的 傳統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것이라 볼 수 있다.

「夢拜金太祖」와 마찬가지로 이 작품에서는 歷史의 原動力은 民族精神이라는 眞理와, 이러한 眞理에 立脚해 새로운 歷史를 開拓해야 할 召命의 內的 覺醒이 강조된다. 한데 이러한 眞理와 召命의 覺醒이 이 작품에서는 觀念的·思辯的 論理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夢遊者 자신의 직접적인 體驗過程을 통해 劇的 緊張 속에서 深化되고 있다. 즉 斷續的으로 진행되는 夢遊者의 幻想的 冒險에서 各 事件은, 밖으로는 ‘永遠한 過程’으로서 超越的 世界의 다양한 局面을 顯示해 주며, 안으로는 이 새로운 世界에 부딪치며 眞理와 召命을 覺醒해 가는 夢遊者 自身の 內的 發展(內面意識의 變化)의 契機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작가 자신의 分身이자 平凡한 모든 韓民族(民衆)의 典型인 主人公 ‘한놈’은, 眞實의 충격에 울고 눈둘러던 그의 弱한 人間性과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임의 나라’(民族의 理想郷)에 到達하게 되는 性格의 發展을 보는 것이다. 이처럼 事件의 展開過程에 따라 主人公의 性格 또는

15) 作家 申采浩에 의하면 歷史란 “人類社會의 「我와 非我」의 鬭爭이 時間부터 發展하며 空間부터 擴大하는 心的 活動의 狀態의 記錄”이다. 申采浩, ‘朝鮮 史研究’, 丹齋申采浩全集 上卷(乙酉文化社, 1972) p. 19.

內心이 發展하는 이 작품의 構造는 그것이 이미 小說 形態에 가깝게 接脈되어 있음을 말해 준다 하겠다.

끝으로 우리는 여기서, ‘永遠한 過程’ 또는 永遠한 世界로 提示되는 夢中 世界(幻想世界) 꿈하늘은 現實世界에 對立·背馳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과 融合·並列되는 世界임을 注目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開化期의 作品 모두는 前代 夢遊錄 作品들과는 달리, 꿈과 實際世界, 幻想과 現實間의 對立 또는 二律背反의인 對照를 강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여기서 注視할 필요가 있다. 「夢見諸葛亮」과 「夢拜金太祖」에서 強化된 작가의 敎訓的 目的 意識은 꿈의 眞實性을 강조하면서, 꿈 속의 人物에 假托한 작가 자신의 主觀(思想)이 現實 속에 반드시 實現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독자에게 要求하고 있다. 꿈 속의 世界 또는 內面世界가 多彩롭게 劇化되어 있는 「꿈하늘」의 경우, 夢遊者의 체험 過程을 통해 提高되고 있는 幻想의 眞實性은, 客觀的 現實世界에 못지 않게 主觀的 心性 또는 精神世界가 眞實된 存在임을 강조하고 있다.

4. 開化期 夢遊錄의 歷史意識

開化期 夢遊錄 세 작품은 年代的으로 愛國啓蒙 運動·義兵戰爭·獨立鬪爭의 延長線上에 있으며¹⁶⁾, 反封建 改革과 反外勢 鬪爭이라는 歷史的 要請에 의해 씌어진 것이다. 過渡期의 두 歷史的 矛盾을 해결·극복하기 위한 知的 努力은 그 시대적 배경이나 知的 內容物에 있어 類似한 樣相을 含蓄하고 있는 夢遊錄 形式을 思考와 表現 媒體로 受容한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夢遊錄 形式은 폐쇄된 兩班官僚社會에 속하는 士大夫들의 觀念的 葛藤에서 分泌된 형식인데, 이를 受容하여 위의 두 역사적 모순을 해결하려 한 開化期 作家들의 知的 努力은 必然的으로 過渡期의 限界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과도기의 思想으로서 이들 작품이 가지는 가치는 多角的으로 평가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前代의 形式을 통해 표현될 수 밖에 없었던 思想의 과도기적 限界 몇가지를 지적함으로써 나머지 가치를 당연한 것으로

16) 「夢拜金太祖」와 「꿈하늘」은 각각 1911년·1916년에 작가들의 中國 亡命 中 씌어졌다.

받아들이고자 한다.

우선 「꿈하늘」과 「夢拜金太祖」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民族的 挫折과 矛盾은 너무 심각하고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意志와 信念은 相對적으로 強化되기에, 역사를 파악하는 태도가 現實에 대한 反動 속에서 觀念的 性向을 띄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¹⁷⁾

「꿈하늘」의 경우 이것은 작가가 社會·歷史的 矛盾의 實相을 正確히 認識하고는 있으나, 도순의 해결 방안을 持續적으로 展開되는 客觀的 現實 가운데서 냉엄하게 檢討·把握할 여유가 없다는 점으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투쟁을 통해 矛盾을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를 推進해 갈 民族(民衆; 한놈)의 精神力 또는 意志만이 無限히 강조되기에 이르른다. 民族의 理想(임의 나라; 독립)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모든 現世的 欲望과 感情을 떨치고 극복해야 된다는 象徵的인 冒險의 旅路를 통해서도 이러한 작가의 思想은 端的인 表現을 보지만, 「民衆直接革命論」의 比喩的 表現인 地獄의 巡禮 場面에서 이 점은 특히 두드러진다. 작가가 作中人物 乙支文德을 통해 “靈界는 肉身的 영상”¹⁾에 지나지 않음을 밝혀 現實과 背馳되는 一切의 超越的 存在를 否定하면서도, 꿈하늘이라는 超越的 空間을 마련하여 現實과 또 다른 內面世界(精神世界)를 形象하게 된 것도 이런 점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¹⁹⁾

儒學의 哲學傳統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白巖의 「夢拜金太祖」는 觀念論的 性向이 보다 뚜렷하다.²⁰⁾ 反封建 改革이 獨立의 지름길이라는 것이 작가의 立場인데, 이 作品에서 그에게 指目된 改革의 가장 큰 標的은 空虛한 性理學의 觀念과 陋習 그리고 自卑·事大精神이다. 이와같이 작가가 관심을 두

17) 두 作家의 民族史觀이 지닌 觀念論的 性向은 思想史의 面에서 多角度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나, 여기서는 두 작품이 지닌 內容과 前代 夢遊錄과의 共分母를 지적해 본 것이다.

18) 丹齋申采浩全集·補遺, p. 159.

19) 이 작품에 표현된 작가의 思想은 “我와 非我的 鬭爭으로서의 歷史”라는 그의 史觀과 「朝鮮革命宣言」의 比喩的 壓縮이므로, 이 자리에서는 作品의 構造와 관련된 이상의 事實을 지적하는 것으로 그치려 한다.

20) 白巖의 思想과 史觀에 대해서는 이 작품만을 가지고 간단히 擧論할 바가 못된다. 다만 이 작품이 公刊되지 않은 文學作品이기 때문에 오히려 民族史에 대한 그의 所信이 아무런 僞裝이나 理論的 粉飾 없이 純然한 형태로 표명될 수 있었으리라는 觀點이 설 수 있기에, 擧論의 素地가 이 자리에서 마련되리라 본다.

고 있는 것은 모순된 역사적 현실의 구체적 實相이 아니라, 주로 모순에 對處한 民族의 精神姿勢이다. 그리하여 모든 문제가 결국 ‘心’의 妙用과 쇄신으로 해결된다는 입장에서 이것의 本質을 밝히고 있다.²¹⁾ 모든 문제의 해결이 ‘心’에 달려 있다면 이러한 心性의 啓發과 修練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歸結이다. 때문에 이 작품에 나타나는 바, 歷史的 諸矛盾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作家가 줄 수 있었던 가장 구체적이고 唯一한 해답은 心性의 啓發·修養과 知識의 啓蒙을 위한 教育(學校教育和 團體運動)이다.²²⁾ 그리하여 작가는 理想的인 教育國家로 독자를 안내하면서 大團圓을 맺고 있다.²³⁾

이러한 그의 教育論은 民族史를 파악하는 그의 史觀으로 연결된다. 즉 朝鮮의 歷史를 이끌어 온 朝鮮民族은 본시 天賦의 資質을 가진 種族으로 檀君以來 麗末까지 그 總明·敏慧한 精神을 잃지 않고 있었으나, 朝鮮朝 以後 朱子學이 가져 온 黨爭과 自卑·文弱·怠慢·虛僞 등의 陋習에 병들어 이러한 精神이 흐려졌다는 것이다.²⁴⁾ 그러면 이러한 民族의 정신을 어떻게 되살려 침체한 民族史를 다시 躍進시킬 것인가? 작가는 朱子學의 陋習에 물들지 않은 “下層社會”에서 民族精神의 復活을 기대한다.²⁵⁾ 그러나 작가는 또 말하기를 朝鮮의 人民은 지배층의 虐政에도 불구하고 그 壓制에 눌려 복종할 뿐 이에 反抗하여 타락한 역사 과정을 개혁할 진보적 용기와 역량이 부족하다고 말한다.²⁶⁾ 이와같이 작가는 現段階에서 民族史의 主體를 民衆으로 파악하면서도 그 역량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難局에 빠져든다. 작품에서 주장하는 개혁의 구체적 방향이 민중의 역량을 啓導하고 民族性을 改造하는 教育에 쏠릴 수 밖에 없었던 것도 이때문이다.

이 작품의 근본 의도는 그러므로 민중을 教化시킬 수 있는 上層知識人을 독자 대상으로 삼고 그들에게 민족의 진로를 제시해 주는 데 있다 할 것이

21) 朴殷植全書, pp. 266-269.

22) 上揭書, p. 276, 280, pp. 286-290.

23) 上揭書, pp. 293-307.

24) 上揭書, pp. 272-273, pp. 290-292.

25) 上揭書, pp. 250-252.

26) “(前略)…所以 人民된 者는 官府에서 如何한 虐政을 施할지라도 服從而已라…(中略)…然則 如此히 無骨無血한 人民을 安用가 自國 政府의 虐待를 反抗치 못하는 者가 엇지 他邦의 虐待를 不受하며…(中略)…엇지 他族의 奴隷를 得免하리오…” 上揭書, p. 262.

다. 「꿈하늘」과 달리 어려운 國漢文混用體로 작품이 씌어진 것도 이와 관련될 수 있는 사실이다.

이밖에도 우리는 이상의 두 작품이 民族史의 偉人들로 構築된 理想國이나 理想的 教育機構를 大團圓에서 設定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當面한 歷史過程에 대한 反動이라는 點에서 이것 역시 前代 夢遊錄과 形式·內容 양 측면에서 相通하는 점으로 볼 수 있다.

封建官僚社會의 理想型을 設定하는 前代 夢遊錄의 convention은 「夢見諸葛亮」에서 中國의 官制를 革新할 理想的 官僚機構를 設定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앞의 두 작품과는 달리 이 경우는 작가가 舊韓末 官僚出身이었다는 데서 起因하는 現象이다. 작가는 中國과 韓國이 前近代의 封建官僚社會의 잔재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는 文化·歷史的 共同體로 보고, 官僚—知識人으로서 자신이 갖는 官僚政治의 理想을 中國에 假托하여 開陳해 본 것이다. 社會上層의 啓蒙을 目的하고 官僚政治의 理想을 밝히기도 하지만, 改革의 문제를 社會上層 內部에서만 解決하려 생각했다는 점에서 官僚出身 作家의 歷史認識의 限界를 볼 수 있다. 日帝의 維新을 羨望 속에서 讚美하고 있는 작가의 논조 역시 이와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5. 結 語

以上에서 本稿는 꿈의 모티프에 의해 敘事의 基本構造를 마련하는 夢遊譚의 傳統과 夢遊錄, 開化期의 夢遊錄을 함께 놓고, 그 意味構造를 상호 관련하에 논의해 보았다. 夢遊의 幻想的 體驗過程은 새로운 眞實을 覺醒하는 契機가 되기 때문에 夢遊譚은 小說史의 傳統 속에서 寓意的·敎訓的 性向을 강하게 지니게 되었다. 夢遊錄은 이와같은 寓意的·敎訓的 成分을 歷史體驗과 관련시켜 작가의 歷史意識을 피력하는 特殊한 類型의 敘述構造를 마련했다. 民族的 危機와 歷史的 矛盾을 해결하기 위한 開化期 知識人들의 知的 努力은 이러한 夢遊錄의 寓意的·敎訓的 性格에 착안하여, 夢遊錄 形式을 자신들의 歷史意識과 改革·鬭爭思想을 피력하는 導具로 受容했다. 「夢見諸

27) 이 작품의 작가와 기타 思想的 內容에 대해서는 尹明求의 上揭論文 參照.

葛亮」과 「夢拜金太祖」의 경우 강화된 작가의 교훈적 목적의식은 前代 夢遊錄이 傳承해 오던 知的·教訓的 成分을 過去人と 現代人의 對話라는 形式으로 擴張시키고, 民族史의 展開過程에 대한 그들의 所信을 이를 통해 폭넓고 자유롭게 표현했다. 그러나 劇化와 敘事를 벗어나 論說化되어 가는 對話形式은 前代 夢遊錄의 敘事構造를 희생시키고 이를 教訓의 主題로 代置하고 있다. 「꿈하늘」은 이와 달리 前代 夢遊錄이 지니던 寓意的 敘事構造를 活用하여 이를 알레고리와 冒險譚의 形式으로 발전시키고, 民族史의 理想을 향해 투쟁해야 하는 民族의 意志 또는 民族精神의 覺醒을 促求했다. 따라서 小說史의 脈絡에서 볼때 「꿈하늘」은 前代의 形式을 새로운 次元의 敘事樣式으로 발전시킨 作品으로 評價될 수 있겠으나, 앞의 두 작품은 前代 形式의 convention을 借用하면서도 敘事의 傳統으로부터는 멀리 벗어나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 작품의 小說史의 또는 文學史의 가치를 形式論的 측면에서만 이야기할 수는 없다. 비록 관념론적 한계(또는 上層知識人·官僚로서의 한계)를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나, 이들 작품의 작가들은 社會·歷史的 現實의 客觀的 實相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문학 작품을 통해 이를 독자에게 覺醒시키고자 했다. 이와 같은 작가의 의식이 後代 작가의 리얼리즘 정신의 思想的 底流가 되었음을 우리는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寓話와 寓話小說이 같은 장르의 범주에 들 수 없듯이 前代의 夢遊錄과 開化期의 作品들이 같은 장르의 범주에서 論議될 성질의 것이 아님을 지적하고자 한다. 兩者는 꿈의 모티프를 통해 작가의 歷史意識을 피력하고 內的眞實을 강조하는 등 몇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同一한 時代社會를 배경으로 하여 그 構造의 면에서 一定 양식으로 類型化된 前代 夢遊錄에 비해, 開化期의 作品들은 作家意識의 變化에 따라 前代 作品들의 敘述構造로부터 멀리 벗어나 각기 새롭고 獨自의인 變形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前代 形式의 殘滓를 보여 주는 過渡期의 作品群으로서, 「開化期 夢遊錄」이라는 이름 아래 이들 작품이 文學史에서 함께 學論될 素地는 충분하다고 본다.